

보도	2023.8.17.(목) 10:00	배포	2023.8.17.(목)
-----------	----------------------------	-----------	---------------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가계신용분석팀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박상만 안신원	(02-3145-8022) (02-3145-8040)
	은행검사1국 상시감시팀	책임자	국 장	김성욱	(02-3145-7050)
		담당자	팀 장	황준하	(02-3145-7065)
	은행검사2국 상시감시팀	책임자	국 장	백규정	(02-3145-7200)
		담당자	팀 장	김우현	(02-3145-7210)
	은행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	책임자	국 장	김정렬	(02-3145-8350)
		담당자	팀 장	김지웅	(02-3145-8330)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I . 간담회 개요

-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이준수)은 '23.8.17.(목)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및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3.8.17.(목) 09:00~10:0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자) 금융감독원, 17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
 -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은행감독·검사국장
 - [국내은행] 시중은행(6개), 지방은행(6개), 인터넷은행(3개), 농·수협은행
 - [은행연합회] 전무

II. 주요 논의 내용

-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 현재 금융권의 최대 현안인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당부사항과 금감원의 입장을 전달하였음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운영>

- ① 먼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와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 구석구석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은행권 자체점검 요청 개요]

- 일련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사고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대해 은행장 주관 하에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요청 (은행장 확인서명 제출)
 - (점검항목) ①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②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③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
 - 금주중 공문(cpc) 발송 예정으로 8.31일까지 제출
- ⇒ 금감원은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

- ② 아울러,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당부하면서
 -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③ 금감원도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게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임

- 이를 위해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가계대출 관리 강화>

① 한편,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함을 당부하고,
- 가계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정책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성을 언급함

② 아울러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한편,

-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지도할 예정임을 전달하였음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 개요]

- (대상) 가계대출 취급 국내은행 대상
- (기간) '23.8월 ~ 10월 [잠정]
- (범위)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점검 등

-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과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 은행차원의 관리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언급하였음

- 이준수 부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붙임)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모두발언
(별첨)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22.11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모두 발언

2023. 8. 17. (목) 09:00

은행연합회(14F)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준수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은행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최대 현안인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및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움직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신뢰가 생명인 은행권에서 발생해서는 안될
중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해당 은행은 물론, 전체 은행권의 신뢰를 떨어뜨려
어려운 시기에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갈 길이 바쁜
은행권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최근 고금리 및 저성장 국면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가계대출은
개별 은행 차원의 건전성 악화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은행장님들께 위 두 가지 현안과 관련한
몇 가지 당부사항과 금감원의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Ⅱ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운영

① 우선, 여기 계신 은행장님들께서 직접 주관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은행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제출)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을 유념하시어 점검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자체 점검으로 모든 금융사고를 전부
예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부통제 시스템이 은행 내부 영업현장 구석구석까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서는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회와 경영진 주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아울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의 밑바탕이 되는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와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통제나 사고예방 장치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임직원의 인식과 유인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없는 조치 등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금감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은 지위고하 없이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당분간은 금감원 정기검사시,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하여
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며,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자체점검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차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은행의 자체점검 체계에 대한
엄정한 규율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행이 사고(징후 포함)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금감원에 보고하여 추가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체제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금감원 검사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Ⅲ | 가계대출 관리 강화

①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가계대출 증감(조원): ('23.3월)△5.1 (4월)+0.2 (5월)+2.8 (6월)+3.5 (7월)+5.4
(은행권) (△0.7) (+2.3) (+4.2) (+5.8) (+6.0)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거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다수이지만,

향후 금리상승 기대 약화,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확산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 등 현행 대출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출 취급시 차주 소득심사, 담보가치 평가 등 필요한 여신심사절차가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전체 가계대출 및 특정 차주군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해당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 정책, 자본관리 계획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② 금감원도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현장·서면 병행)을 실시(8월 ~ 10월 예정, 잠정)하여,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한편, 가계대출 취급관련 법규 준수여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고,

점검결과 리스크관리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은 즉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DSR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금융위 등 관계부처·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IV 맺음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은행은 예금자 등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그 존재 기반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은행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을 연결하는
일종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은행의 위기는 경제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켜주고,
늘려줄 것이라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은행권과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을 갖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은행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은행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은행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22.11월)

구 분	주요 내용
가.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1. 준법감시부서 인력규모·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①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직원의 최소 0.8% 이상 & 15명 이상(대형은행 기준) 확보 ②부서 내 전문인력 20% 이상(주요 6개 분야 포함 필수) 확보
2. 준법감시인 선임시 자격요건 강화	①선임 시 자격요건에 관련업무 (준법·감사·법무 등) 경력 추가
3.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	①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5% 이하 로 관리 (현재 시중은행은 11.4% 수준) ②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 마련 - 장기근무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임원 으로 상향 - 장기근무 승인요건으로 1)불가피성, 2)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채무·투자현황 확인 등) 심사 의무화
나.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1. 명령휴가 제도	① 명령휴가 대상 본지점 고위험 직무 확대, 장기근무자 포함 ② 위험직무자 등 강제 명령휴가 의무화 (일반 휴가 등 대체 불가)
2. 직무분리 제도	① 직무분리 대상 고위험 거래 범위 확대·구체화 ② 직무분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
3. 내부고발자 제도	① 내부고발 익명성 강화 (내규상 실명신고 문구 삭제) ② 고발유형별 보상기준 다양화 ③ 고발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의무화
4.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	① 지점 이외 본점 부서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② 사고예방대책의 직무별·직급별 역할과 책임(R&R) 구체화 ③ 자점감사·교육 등 내부통제 활동과 연계
다.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1.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①비밀번호를 대체할 소유·생체기반 인증방식 도입·확대
2.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① 기업구조조정 관련 공동자금 채권단 검증 의무화
3.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① 기안→날인→지급시스템간 연계 체계 구축 ② 단계별 중요사항 검증 의무화 (금액, 결제번호, 수신인 등)
4.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	① 수기 기안문서 전산 등록·문서번호 자동 부여 의무화 ② 수기 접수문서 활용 시 검증 체계 구축
라.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1.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① 상시감시 대상 본점까지 포함, 중요 이상지표 보고·처리·사후관리 체계 강화
2.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	① 자점감사 결과보고 체계화, 자점감사 부실징후 영업점 현장점검 절차 마련 등